

동중부 KCLC Newsletter



앉은뱅이 꽃

- 박 앤 (시파스, MAR KCLC)

텃밭에서 막 베어 낸 햇부추처럼
매콤하고 아릿한 향기였지요
그가 내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코끝을 스쳐 가는 부추 향
넋 나간 듯 그 향에 취하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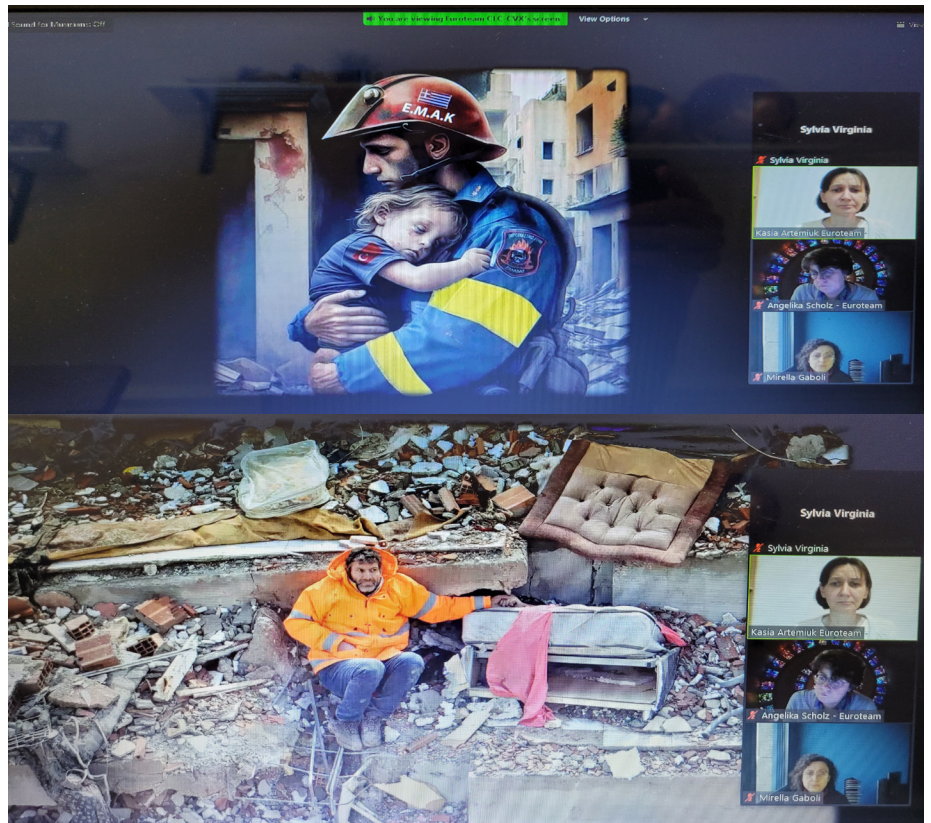
가끔 그의 향기 살 내음으로 다가와
고요하던 내 마음에 풍량이 일면
무작정 거리를 헤매다가 길가에
주저앉습니다
행여 그가 이 길을 지난다고 해도
흙바닥에 앉은 나를 알아볼까,
하면서도 앉은뱅이꽃이 되어
그를 기다립니다

풍경인 듯 인적 드문 길가에
앉아있으면 해는 들다 지고,
바람은 또 이리저리 불었지요
내 몸엔 어느새 가는 실뿌리 자라
고, 앞 돌고 손톱만 한 보랏빛 꽃이
핀니다

훗날 처진 어깨로
고개 떨군 채 그가 이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발밑에 핀 나를 보고
걸음 멈추면 비로소 나는 꽃입니다

World CLC 소식

• Online Prayer : 2023년 2월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참사에 World CLC 주최한 온라인 기도가 2월 24일에 영어, 스페니쉬, 그리고 불어로 있었습니다.



CLC in USA 소식

- CLC in USA 에서 주관하는 19번 피정 안내
- Exco At Large 임원 후보 추천 2명
- 세계 CLC 총회: 2023년 8월 프랑스 아미앵
- **CLC in USA 총회 : 7월 25일, Cleveland, OH**
- 5월 23일: 각 지역 Exco와 CLC in USA Exco 의 만남으로 질문, 도전 그리고 건의 사항등 나눔
- 5월 21일 차세대 리더십 평가 : 참가자의 Presentation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논의
- 5월 6일 CLC in USA 주관 리더십 워크샵 마침

NKCLC 소식

- 4월 22일 의장단 모임 보고 및 안건:
 - 19번 피정 종신 서약자 대상자 명단 제출 요망
 - 지원기 TF Team 와 수퍼비전 교육 보고, 영신수련 동반자 교육과 보스턴 지원기 현황 보고
 - 청년 사도직 (영어권, 한국어권) 15명 참가
- 2023년 양성 워크샵 안내 (8월 26-27일):
NKCLC 각 지역에서 행정, 집행, 양성팀의 조직 구성하

고 양성팀 안에서 Process Team, Community Guide Team, Material Team을 구성하는 것을 추천함

- CLC 용어 통일하기:
회원, 코디네이터, 진행자(facilitator), 소공동체 가이드 (Community guide), 피정 동반자(Prayer companion or Spiritual Director)

동중부 소식

- 4월 2일 코디 모임: 팀보고 및 현황
 - 클러스터 모임 설문지 평가에 관하여 긍정적, 불편했던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등 나눔
 - 봄피정 중간 평가와 팀원들의 반응
- 4월 22일 브런치 모임 준비
- 지원기 모집 안내: 9월 계획으로 팀원들에게 공지
- 연피정 안내: 8월 10일 - 18일 (8박 9일)
예수회 박병관 신부님과 함께
- 팀장 모임 때마다 코디 교육과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 5월 22일 오세일 신부님 방문

- Exco 임원회 모임 (5월 24일): 피정비 책정, 오세일 신부님 방문 일정에 관하여, 연피정 체크 리스트 확인
- 4월 15일 가이드 모임: 각 팀의 현황 보고, 클러스터 모임에 관하여, 이근상 신부님과의 봄피정 현황, 첫 서약자의 19번 피정에 관하여 논의
- 6월 3일 양성부 모임: 동중부 양성부 지침 완성, 동중부 CLC 안내 Brochure 제작, 봄피정 Evaluation에 대한 나눔, 종신 서약 회원들 위한 프로그램과 Survey 필요, 연피정 준비 논의



동중부 공동체 회원들 소식

- 헤세드팀의 팀장이신 김정현 엘리자벳 자매님께서 지난 3월 21일 워싱턴 한인 마라톤 클럽 주체에서 마라톤을 완주하시고 2등 하셨습니다!



워싱턴한인마라톤클럽(회장 김철수) 회원들이 DC에서 개최된 락앤롤(Rock & Roll)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입상했다. 60-64세 남자 부문에서 전홍균 씨는 3등(1시간38분), 65세-69세 남자 부문에서 탁병인 씨 6등(1시간56분), 70세-74세 여자 부문 김정현 씨는 2등(2시간32분)을 각각 기록했다. 완주자는 양우철, 전홍균, 김상호, 조기중, 탁병인, 제이 남, 염은호, 이창열, 김철수, 모정호, 하찬형, 박재용, 권성일, 김세환, 홍성명(이상 남자 15명), 김정현(이상 여자 1명) 씨. 사진은 락앤롤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워싱턴한인마라톤클럽 소속 회원들이 완주후 메달을 걸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

- 평화팀 사도직: 4월 23일 평화팀에서 십자가의 길 봉헌을 했습니다.



- 박 안 자매님께서 두번째 시집 "폐가의 아침"을 출간하셨습니다. 첫번째 시집 "못다 지은 집" (2009)에 이어 두번째 시집 출간 하심에 축하 드리며 공동체 전 회원에게 시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중부 봄 친교가 4월 22일 성 정 바오로 성당 친교실에서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26명의 회원들이 함께 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실로암팀 100차 모임이 아네스 자매님 댁에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한 시간들에 감사하며, 한 곳을 바라보는 자매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좋은 날씨와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 로마에서 온 소식
그레고리안 대학 졸업식이 6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수녀님들, 수사님들 그리고 신부님들의 재정을 도와주신 동중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정강엽 신부님께서 전해 오셨습니다.





마태오 4,1-11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
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
으셨다.” (1)

주님, 신명기 저자는 히브리어에서 어원이
같은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광야 - 미드바르

말 - 다바르

“이것은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아라바에
있는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한 “말”
이다.” (신명기 1,1)

광야란 무엇입니까? 광야는 떠돌이 삶을
상징하는 곳인가요? 생명을 찾기 힘든 희
망이 사라진 곳인가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떠도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요? 하지만 당신의 섭리로 모세와 이스라
엘 백성에게 광야의 시간은 가나안이 목적
지가 아니라 하느님을 찾아가는 목적을 위
해서 존재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이렇듯 광
야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말씀을 건네주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자신
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스런 장소입니다. 하
지만 하느님의 말씀의 색깔은 다양합니다.
위로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십니
다. 광야의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납니다. 하
느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의 얼굴. 무엇보다
광야는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속에서 피

할 수 없는 거짓의 흐
름속에 존재합니다. 그
때 하느님의 목소리만 “
걸려” 들을 수 있는 작은 가
능성에 자신의 존재를 걸어야 하
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광야앞에서 하느님
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은총의 시간이요 희망의 시간이 됩
니다.

주님, 매일의 광야에서 예수님처럼 하느님
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고독을 원합
니다. 그 순간이 구원이고 성스러운 공간
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구원은 멀
리서 찾는 목적이 아니라 나의 광야의 체
험에서 직접 길어내어야하는 직접적 경험
의 시간입니다.

2.24.2023 _____

마태오 9,14-15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
안에 슬퍼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
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
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15)

주님, 저는 오늘 복음에서 당신이 “시간의
적절함 즉 때”를 아는 것의 중요함을 알려
주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같은 사안을 두
고서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
요? 그것은 내 이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
느님 당신의 시간속에서 살아가야 가능하
지 않을까요? 즉 “제 때”를 살아가는 모습
입니다.

심해에 좌초된 잠수함이 수압을 견딜 수 있
는 철판의 두께는 30cm이어야 한다고 합
니다.그렇게 두껍지 않으면 휴지조각처럼
잠수함은 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
압이 있는 곳에 예쁜 피부를 가진 여린 모
양의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것
은 외부의 압력과 물고기 내부의 압력이
같기 때문이라고합니다.

하느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맞출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때를 아
는 사람이고, 그는 하느님을 살아가는 사
람이 아닐까요? 하느님의 현존안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압력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힘보
다 더 강한 힘을 기르기 보다는 나의 내면
의 힘을 하느님의 힘과 맞출 수 있는 포기
와 지혜의 저울이 필요합니다. 그 지혜의
저울의 바늘은 나의 것을 포기하는 마음의
가난의 깊이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마태오 5,20-26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
중에 얻은 타협하여라.” (25)

주님, 법정으로 가기 전에 도중에 타협하
라는 말씀을 화해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알아들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용서와 화
해는 말하기보다 행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는 누구나 압니다. 몇가지 질문이 올라옵니
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고 하는 말이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하기조차 고통스러운 과거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상처내지 않고 화해할 수 있는가? 용서에 어떤 한계가 있어야 하는가? 모든 용서는 과연 아름다운가?

다른 사람들이 특히 친한 친구나 공동체 사람들이 나를 매우 부당하게 취급할 때의 상처는 너무 깊습니다. 그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직면해서 우리는 저항의 종을 울려야 합니까 아니면 침묵의 덕을 실천해야 합니까?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에게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화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잔인한 행동이 아닙니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니까?

하지만 오늘 당신의 법정에 가기전에 타협

하라는 말씀에서 두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제 3자나 전문가에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움직이기 보다는 이미 우리안에 있는 문제해결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내면의 선물로 - 아마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선물 - 당사자와 화해나 타협의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화해나 용서는 단기전이 아니라 오래 시간이 걸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은 언제나 불확실성과 애매함과 분리될 수 없는 길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피해자에게는 분명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화해는 인내의 딸입니다. 화해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닙니다. 쉽게 하는 용서

는 또 다른 비극의 전주곡일 뿐입니다. 숙성된 용서와 화해의 길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억울함이 평생 저를 지배하게 허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삶이 비참할 뿐이겠지요. 저는 거울이 먼저 웃지 않는 법을 상기합니다.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마신 후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하는 시간이 언젠가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화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억울함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것인가를. 그때가 바로 주님에게 사로잡히는 시간입니다. 미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곳에 용서의 자리를 조금이나마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Project 179 CLUSTER MEETING 은총의 열매 (2023/03/24 주제 : 희망을 위한 식별의 여정)

	1st pre-cluster	2nd pre-cluster	Cluster meeting (03/24/2023)
1 조	<주 레지나, 이 모니카, H 데레사, 김 엘리사벳, 최 루시아, 김 마르타> - 한 곳을 향한 자매님들의 모습 - 열정	- 성령의 이끄심 - CLC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되어짐 - 믿음, 역동적인 힘 - 그분께로 가려는 희망, 가까이 가려는 모습	<용데레사, 박 유스티나, 박 로사, 이 비비안나, 김 카타리나, 김 엘리사벳> - 믿음 안에서 희망, 공동체 안에서 힘을 받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감에 대한 감사 - 성모님에 대한 “예”라는 응답을 통해 희망을 바라보며 주님께 향한 열정이 올라옴 -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심어주시는 희망과 공동체의 소중함.
2 조	<오 로사리아, 한 도미니카, 김 연옥 아녜스, 원 마틸다, 김 선령 아녜스, 박 유스티나> - 기쁨 - 내적인 깊이 -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일치 - 믿음의 단순함 -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갈망하는 우리들의 모습 - 내 자신과 공동체에 방해가 되는 약함에 성모님이 모범이 되어주심	- 겸손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하기 -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선택으로 이끌고 싶은 마음 - 사랑으로 삶 안에서의 관계를 맺어감 - 하느님을 따르면서 만나게 되는 좌절과 희망을 믿음으로 성장 - 우리의 죄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희망의 길을 보여 주시는 예수님	<김 요한, 강 베로니카, 최 세실리아, 이 데레사, 오 로사리오> -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기쁨, 희망, 믿음, 생명을 느낀다. -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다는 기쁨 - 프로젝트 안에서 창조, 희망이 기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하느님 방향으로 공동체 쪽으로 내 마음을 내려 놓는 것을 성령님께서 이끌고 계심 - 즐겁고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희망을 품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음에 감사 - 성령님이 모든 회원들을 나눔 안에서 부르고 계심
3 조	<용 데레사, 이 데레사, 유 안나, 양 엘리사벳, 양 카타리나> - 따르려는 마음 - 신뢰감, 희망을 찾으려함 - 주님이 함께 계심에 희망 -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하느님/부르심	<용 데레사, 이 데레사, 유 안나, 양 엘리사벳, 양 카타리나> - 따르려는 마음 - 신뢰감, 희망을 찾으려함 - 주님이 함께 계심에 희망 -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하느님/부르심 - 감사와 기쁨, 희망으로 이끄심 -한 곳으로 모으심 - 가까이 가고픈 이끌림 - 희망의 속삭임	<이 아오스딩, 한 도미니카, 박 마르타, 주 엘리사벳, 임 요한> - 희망에 찬 사랑 - 사랑 - 기쁨 - 준비해서 청할 수 있는 희망
4 조	<심 안젤라, 김 실비아, 김 베로니카, 오 아녜스> - CLC 총회를 앞두고 모든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 - 우리의 생각과 속도를 늦추고 현재에 응답하며 살아감 - 성모님의 믿음과 CLC 안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바라봄 - 성모님의 ‘예’의 응답에 대한 숙고의 시간	- 성령께서 나와 공동체를 일깨우심. 적극적, 능동적이고 기쁘게 살라는 메세지. - 즐겁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희망은 믿음에서 가능함.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세지 - 하느님의 사랑을 듣고 공부하며 실천 하고자하는 마음들 - 우리들의 나눔 안에서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게 됨	<김 이냐시오, 정 나단, 주 레지나, 정 아녜스, 정 도로시, 김 선령 아녜스> -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서 갖는 희망 - 믿음 - 함께 하는 기쁨 - 우리의 선택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짐 - 기쁨

5 조	<이 아오스딩, 김 이나시오, 임 비비안나, 주 엘리사벳, 정 아네스> - CLC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향해가는 기쁨 -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위로	- 예수님을 향해 계속 더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 모든 생명체 안에서 희망을 바라봄 - 겸손에 대한 숙고 - 나눔과 성경 읽기에 대한 중요성 인식	<심 안젤라, 이 세실리아, 김 마르타, 한 아네스, H 데레사> - 공동체에 대한 사랑, 소중함, 희망, 친근감 - 공동체에 대한 관심, 충실하고 싶음 - 공동체를 생각하게 됨, 관대하게 바라봄 - 공동체 역할, 공동체에 대한 존경심 - 신뢰하게 됨,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마음 가짐
6 조	<정 도로시, 최 세실리아, 박 로사, 임 요한> - 전례력의 중요성 - 믿음과 신뢰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의 기쁨 - 나 자신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이 “예”라는 대답을 가능케 함 - 성모님의 위로, 하느님과의 관계 - 신앙인으로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 -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의 중요성 - 기도 안에서의 성찰의 중요성	- 성모님의 식별(공공히 생각하심), 이미 마련해 주심, 기다림 - 부르심에 준비된 대답 - 식별 안에서 꼭 필요한 겸손의 자세 - 믿음, 식별 - 주님이 진리라는 믿음 - 믿음과 기다림(식별의 자세) -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를 실천해 가는 삶 - 믿음	<김 데레사, 최 루시아, 임 비비안나, 조 에반젤리나, 이 마리아> -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열망 - 다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희망 -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 - 하느님을 향한 열망 - 즐거운 희망
7 조	<김 데레사, 김 요한, 이 비비안나, 박 안나, 조 에반젤리나, 한 아네스, 최 다윗> - 긍정, 능동, 수용, 기쁨 - 잘 듣는 연습 - 성모님의 신심에 대한 본받음	- 현실에 충실함 - 8월 총회에서의 열매에 대한 기대 - 삶은 선물 - 배려	
8 조	<김 마르타, 김 소피아, 이 세실리아, 채 안나, 한 프란체스카, 정 나단> -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 - 믿음에 대한 다짐 -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과 공동체로 향하는 마음	-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 - 우리 자신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 - 주님과 머무르며 함께 나아가고자 함. - 우리 모두 하느님께로 향하려는 방향이 같음을 느낌	
9 조	<강 베로니카, 김 카타리나, 박 마르타, 이 마리아> - 성모님의 응답과 그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받아 들이심. -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결해서 서로 나누는 모임의 기쁨을 바라심 - 믿음안에 머물기 - 희망으로 나아감	- 믿음, 겸손, 신뢰, 사랑 - 받아들이고 내려 놓음 - 겸손과 사랑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 -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낮은 자 되어 맡겨 드림	

내가 사랑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람처럼 홀연히 이 세상에 왔다가 구름처럼 하느님 품으로 흘러갑니다. ‘하느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는 말씀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그분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갑니다.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두렵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믿고 섬기고 사랑했던 그분을 이제 곧 만날 수 있다는 ‘마음 덕분에’ 설렙니다.

사제는 ‘사랑에 빚진 자’라고 했죠. 하느님 사랑에 빚지고 부모님 사랑에 빚지고 세상 사람들 사랑에 빚진 한 사제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가슴속 깊이 물어뒀던 글을 남깁니다.

이 세상에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마리아! 불교도였던 어머니! 자식들이 사체품을 받지 못할까봐 낫선 종교에, 낫선 기도문, 낫선 세례명을 십자가처럼 평생 걸머진 사랑 많은 나의 어머니! 천주교 신부 되면 마누라 없이 평생 혼자 살아갈 것이 걱정되셔서 뒤돌아 눈물을 흘리시던 호수 같은 우리 어머니!

남편 요셉을 성요셉 축일에 하늘로 먼저 보내시고 홀로 밤을 지새우셨던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 곁에 뒀자리를 사놓으셨다고 죽어서도 남편 곁에 있을 수 있다고 마냥 소녀처럼 행복해 하셨던 우리 어머니!

평생 쌓아둔 중압감을 못 이겨 중풍까지 끌어안고 휠체어에 앉아 홀로 집에서 수도자처럼 수행생활을 하고 계신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던 지혜로운 며느리와 토끼 같은 손자·손녀를 품에 못 안겨드려서 미안합니다. 외로워하시는 어머니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간간이 드리는 용돈, 생활비로 스스로 아들 노릇 다했다고 자족했던 이 불효 자식을 제발 용서 해주십시오.

어머니! 바람이 잡니다. 몸 건강하세요! 이제 둘째 아들, 둘째 신부는 먼저 떠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젠가 형님 신부님이 아버지 장례미사 강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천사가 돼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곁에 머무를 겁니다.

어머니가 외로울 때면 어머니 꿈속에 나타날게요. 우리 아주 가끔씩 꿀같은 데이트를 해요! 어머니 덕분에 이 아름다운 세상 잘 쉬다 갑니다.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하고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엄니! 행복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주님 안에서...

제가 평생 섬겼던 주님은 아무 것도 없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제 사제관을 뒤져보면 남은 것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교회가 허락한다면 화장해서 뿌려 주십시오.

2023년 1월 31일에 선종하신 대전교구
맹상학 마르첼리노 신부님
(이주사목부 전담, 향년 53세)

+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드립니다.

